영암군, 스마트도시 조성 속도 낸다

국토부 공모 12억 5000만원 확보 내년 6월까지 25억원 투입

스마트 승강장·횡단보도 등 설치

영암군이 스마트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암군은 국토교통부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 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은 치안과 교통, 안 전 등 지역사회 내부 사회문제에 그 실효성이 검증 된 스마트 솔루션을 빠르게 보급해 지역민의 디지 털 격차를 줄이고,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하도 록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치안과 교통, 안전 등 지역사회 내 부 사회문제에 그 실효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을 빠르게 보급해 지역민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 고,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체감하도록 만드는 사업

영암군은 영암·삼호읍, 덕진·군서·학산면의 안 전·교통·관광분야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해 선정됐다.

군은 국비 50% 포함 총 25억원 규모로 다음달 국토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은 지난 2020년 완료된 스마트 통합플랫폼 과 연계해 지역 내 각종 인프라 효율적 관리, 공공 데이터 수집・활용 등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 대, 도시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폐쇄회로(CC)TV로 안전을 지키 는 스마트폴,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스마트버스승강장, 교통약자의 안전한 길 건너기 를 돕는 스마트횡단보도 등을 설치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영암 군이 한 단계 도약할 중요한 기회다"라며 "검증된 첨단 기술로 영암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겠 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김희수(오른쪽 네 번째) 진도군수가 이끄는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오스트리아 업체와 300만달 러 수출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진도 농수산물 유럽 첫 수출…300만달러 협약

Pan Asia Handels GmbH · 대한민국 진도군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오스트리아 빈 에서 300만달러 상당(41억원) 농수산물 수출협 약을 맺었다.

김희수 진도군수가 이끄는 수출개척단은 오스 트리아 식품수입유통업체인 ㈜판아시아와 300만 달러 수출협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진도 쌀과 건해산물 등 농수산물 15t이 오스트리아 소비자와 만난다. 이는 진도 농 수산물을 첫 유럽시장 진출이다.

2002년 설립된 ㈜판아시아는 영국 런던 등에 6 개 지사를 보유한 식품 수입유통업체이다. 유럽 전역에 6000여 개의 현지 거래처를 통해 해마다 약 1000억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

수출개척단은 오스트리아 아시아식품 전문 시장 '아시아 푸드 센터'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인식품 전문 온오프라인 매장 '케이-숍' 등을 찾았다.

이들 매장은 ㈜판아시아의 주 거래처로, 진도 농수산물 판촉전이 진행됐다.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이번 행사를 계 기로 매장 입점 활성화와 수출 품목 다양화 등을 혐의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지난해 호주(시드니) 를 필두로 미국(LA, 필라델피아), 베트남(하노 이)에 이어 이번에 방문한 오스트리아(빈), 독일 (프랑크푸르트)까지 총 5개국 6개 지역에 1100만 달러(약 150억원)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수출개척단은 다음 달 4일까지 오스트리아, 네 덜란드, 독일을 잇달아 구매수입상과 업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현지 유통망, 구매수입상 등과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진도군의 우수한 농수산식품으로 해외시장 문을 계속 두드리겠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신안군 'ESG 코리아 어워즈' 전남권역 대상

친환경 정책・주민 복지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 행정 공로

신안군이 '2024 ESG 코리아 어워즈 시상식' 에서 대상을 받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옛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린 ESG 코리아 어워즈 시상식에 참석해 기초지자체 전 남권역 대상을 받았다.

'ESG 코리아 어워즈'는 ESG 행복경제연구소 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시상 식이다.

단순한 사업성 위주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해 지방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신안군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임 행 정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친환경 정책 추진과 주민 복지 향상, 투명한 행정 운영 등 다 양한 ESG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해양 생태 계 보호와 재생에 중점을 둔 환경 보호, 지역 사 회와 소통을 강화한 사회적 책임 활동, 그리고 투



박우량(오른쪽) 신안군수가 서울에서 열린 'ESG 코리아 어워즈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전남권역 대 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끌어낸 점이 주목을 받았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신안군민 모두

가 함께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코리아둘레길·달마고도 워킹데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진행

해남군이 땅끝해남을 걸어서 여행하는 '코리아 둘레길·달마고도 워킹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워킹데이는 6월8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토 요일 해남의 대표적인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 길과 달마고도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코리아둘레길은 한반도 외곽을 따라 이어진 약 4500km 초장거리 걷기길로, 해남구간은 남파랑길 과 서해랑길의 총 12개 코스로 조성돼 있다.

송지면 땅끝마을 땅끝탑에서 서해랑길이 시작되 고, 남파랑길이 끝나면서 코리아 둘레길의 가장 중

요한 거점으로 꼽힌다. 각 코스마다 해남의 서쪽 해안을 따라 걷는 노둣길, 드넓은 일직선의 평야지 대길, 들과 철새를 벗 삼아 걷는 저수지길, 한반도 지맥의 마지막 용트림이라 불리는 달마산의 달마 고도길 등 이야기를 가득 담은 길이 이어진다.

남파랑길 3개 코스(85·89·90코스, 46.3km), 서 해랑길 9개 코스(1~5코스, 13~16코스, 138.5km) 로 총 12개 코스이며 184.8km에 이른다.

11월23일까지 총 12회 운영하며, 걷기에는 트 레킹 가이드가 동행한다. 해남읍 서림공원에서 회 차별 출발지까지 무료 왕복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군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달 14일까지 작품 접수

완도군이 오는 6월14일까지 상반기 '군정 발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 사업안을 행정에 반영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소통·참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치유 관광 활성화 방안'과 인구 감 소 대응·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인구 일자리 정 책',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미래 발전 정책',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

생활 공감 정책', '생활 속 불편·부당 규제 발굴', 기타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다.

공모전은 다음 달 14일까지 완도군 누리집과 국 민신문고, 이메일,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군정 발전에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기획예산실 정책팀 (061-550-50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은 1차로 담당 부서에서 제안을 검토한 후 2차 제안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 계획이다. 2차 심사에서는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평

가해 우수 제안을 선정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오는 7월 중 상급을 지급할

우수 제안은 등급을 결정해 금상(상금 70만 원), 은상(#50만원), 동상(#30만원), 장려상 (〃15만원)을 준다.

수상자 외에도 공모전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특 산품 등 소정의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접수되어 정책 발굴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완도 발전을 이 끌 수 있는 제안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말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전통시장 수산물 상품권 환급행사

종합수산시장, 중앙식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주말 특별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행사는 수산물 구매 때 구 매금액의 최대 30%까지(6만7000원 이상 2만원, 3만4000원 이상 1만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해주는 제도이다.

목포시는 올해 동부시장 등 5곳에서 수산물 온 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네 차례 열어 전남 최다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주말 특별전을 동부시장 등 5곳에서 운영했다. 환급액은 7억원 상당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 전남도 상인연합회 주관 '전남도 장터유랑단' 공연을 전통시장에 유치했다. 장터유랑단은 이달 신 중앙시장, 청호시장, 중앙식료시장 등을 찾았다. 오 는 6월2일에는 동부시장에서 흥겨운 전통 놀이와 가수 공연이 펼쳐진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무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ㆍ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문흥지점 ∖ 동림지점 ・본 • 여신사업부 ・각화지점